

육가공품 수입에 대한 육계업자의 견해



□ 일시 : 1987년 6월 15일 (월) 오후 3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참석자 : 권태웅(솔피농장 대표)
 김중섭(영양농장 대표)
 김풍림(성림농장 대표)
 이종길(안평축산 대표)
 장민기(바들농원 대표)
 조정래(수원분회)
 □ 사회 : 노영한(분지편집국장)
 □ 정리 : 조종수(분지 기자)

개방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사회: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점차 가중되면서 오는 7월 1일
이후 돼지고기 통조림, 닭고기
통조림, 소세지를 제외한 소세
지 유사 조제식품 등 3개 육가
공 제품의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 수입조치가 국내 양계업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들
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
자면 국내 전문가들이 추측하
는 바 7월에 수입이 개방될 경
우 8~9월부터는 대량수입이
될 것이고, 대략 10~12월부터
는 구멍가게까지 수입깡통이
진열될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

나라 축산업계에 커다란 어러
움이 성큼 장마철 먹구름처럼
다가왔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업계의 움직임이 바
뀌어가는 시점에서 생산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
죠.

생산기반 약한데
개방해서는 안돼

장민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축산분야는 아직 생산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국내 생산기반이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수입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외국과의 생산경쟁력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자타가 공인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원료구매의 제한, 고율의 관세, 부가세 국산원료사용 등이 외국에 비해 악조건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물에 있어서 생산비가 높은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조치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좀더 있다하든지 아니면 국내 축산물 제 제도에 올려놓고 경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꾸 과잉사육에만 전전긍긍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업체 발전을 위한다면 "생산효율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하는 생산효율 정책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내 육가공산업 무너지고 원료육 수입 개방 명분 주게 돼

김풍림: 국내에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보는데 닭고기 같은 경우는 가공분야에서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가공분야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품 수입이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공분야가 제대로 발전되기도 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셈입니

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가공육시장이 개발되어 가공육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국내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산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결국은 국내 원료육 생산가격부터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공분야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당하게 되는 꼴이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생산기반에서의 원료육까지도 외국 수입품에 무차별하게 당할 우려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정부에서는 두번째 생육까지도 크게 침범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료값 인하라든지, 동물약품업계 등 각종 업계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국내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업체들이 가공산업을 이룩해 나간다면 순서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료육 수입이 증가할 조짐

사회: 어떻든 칠면조 고기가 정육으로 1,400원에 수입되어 닭고기 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 위에 정해 놓을 경우 특히 양계산업은 가격진폭이 크기 때문에 수입자유화로 인해 제일먼저 작은 규모가 쓰러지게 되고 이 모자라는 물량만큼 또 수입되고 해서 면화와 콩농사 처럼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피해가 생산자한테 물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



장민기 사장

“우리나라 축산분야는 생산기반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수가 없다.”

김중설 사장





권태웅 사장

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생업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권태웅: 우리가 수입한다는 얘기는 전에 들어왔지만 막상 7월 1일부터 수입개방을 하게 되니까 뭔가 착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좀더 일찍이 수입이 얼마만큼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시켰어야 했었는데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한채 갑작스럽게 통조림 깡통을 보게 되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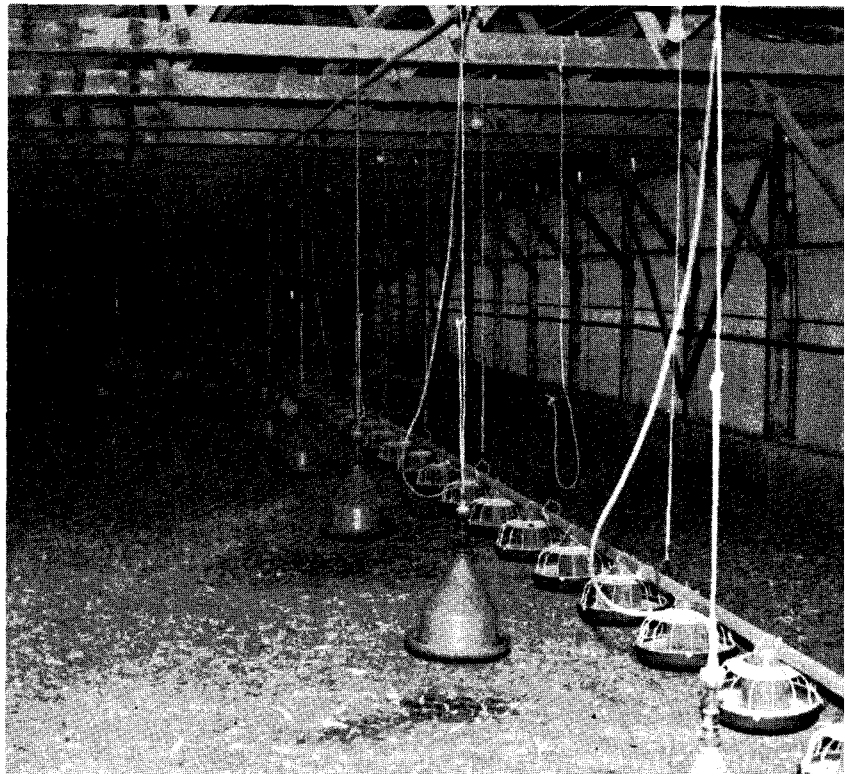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이번 수입조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산자가 수입에 대해 직접 관련된 생

업인 만큼 의당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위원장님 얘기처럼 '생산기반이 약하므로 수입을 지연하자 그리고 수입이 되더라도 극소화 시키자'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생산자가 우리의 생업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단체인 양계협회가 수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 있어야 하겠고, 생산자들은 양계협회를 뒷받침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수입업자에 부과금 부과하여 생산기반에 투자해야

또한 정부가 어쩔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수입에 의해 나오는 이익만큼은 국내 생산

“말로만 듣던 수입개방이 막상 실시되니 뭔가 착잡한 마음 뿐입니다. 좀더 그 심각성을 생산자에게 일찍 노출시켜 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재 활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수입에 대해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 완충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어차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놓이게 된 만큼 우리가 벌려놓은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명석 위에 올라섰으므로 모든 여건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보사부·관세청·농림수산부·소비자가 수입 막아야

이종길: 현재 우리 나라가 축산물 원료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수입을 개방한다는 자체는 국내에서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생산원자재인 사료에 대해 관세, 부가세, 쿼터제로 묶어왔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들은 사료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야단지경에 있습니다. 인젠가는 우리나라도 수입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 경쟁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양담배를 수입한 이후 별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며 이를 축산물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는 직접 소비자인 가정주부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담배의

경우와 같이 남성들과 상대하는 것에 비해 그 성격차이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비자들의 외제선호사상은 굉장합니다. 외제는 남대문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도 구입하면서 국내제품은 유효기간을 조금만 넘겨도 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들이 외국제품을 구입해야 중산층 대접을 받는 풍토의 허영심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에서 여러가지로 축산업계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당장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생각되며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7월 1일부터 수입을 개방하는 대신에 6월 30일 자로라도 현재 규제되고 있는 모든 조치를 풀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찾아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입계란에 대해서는 질병예방이란 이유를 붙여 소독을 실시하고 그러면 계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직접은 못먹는다고 하여 공업용으로 사용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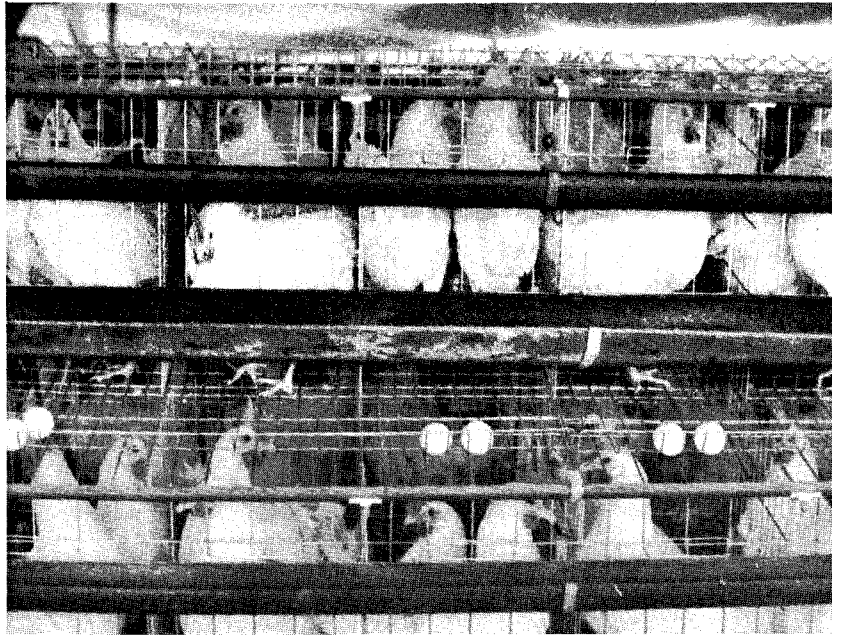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관세를 적용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국내 양축가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입물량을 조정해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육하는
실정인데
이제 원료육을
수입개방한다는 것은
국내 축산업을
하지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종길 사장



“수입개방이 이제
 실시된 것이 어찌보면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많이
 참아준것 인지도 모른다.
 그간 우리는
 수입개방에 대비한
 생산비절감을 위해
 너무 소홀히
 해왔지 않나 한다.”



나가야 합니다.

부과금 관세제도 적극 활용
 해야

조정래: 이 수입소리가 벌써부터 거론되어 오래된 바 사실은 그 동안 참아준 것만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이점 우리 생산자들도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금번 수입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러했겠지만 시설개선이나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받는 타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외국에서 사료원료가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또한 병아리를 생산하는 그 원종이라든지 GPS, PL을 직접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여기에 노동력을 제공해서 축산식품을 생산해 내는 노동의 댓가를 받고 있을 뿐인데 이것마저 막았을 때 파급

되는 실업인구 증가는 사회적 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왕 어쩔 수 없이 수입개방이 되어 들어온다면 수입에 의한 부과금 등을 재 활용하여 국내 생산기반에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외국으로 역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축산업자들 부채 상황은 농어가부채에 못지않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태여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종 세제에서 혜택을 주고, 시설현대화 해 나가는데 용자같은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이용법을 개선해서 축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다가올 국제 식량무기화라는 형식으로 물러올 선진국의 횡포에 대처

조정래 사장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80%이상 생산기반을 가지고 국내소비를 충당해 나가면서 국제식량무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20%정도의 수입물량은 조절용으로 사용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 교육에 힘써야

김중설: 제 나름대로 바라는 것은 양계협회에서 소비홍보사업을 더 활발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외국의 닭고기가 육가 공제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생산자는 키우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입안자와 생산자가 호흡일치되어야 하는 풍토가 하루 빨리 왔으면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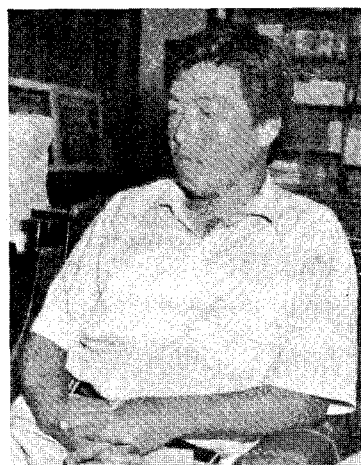
생산자 도산하면 사료공장도 줄줄이 도산

김풍림: 제가 보기에는 공업분야 쪽이 70년대에 한창 기초적인 성장을 하면서 오일쇼크를 만나게 되어 그때 당시 상당히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었다고 봅니다. 현재 축산업 분야를 지켜 볼 경우 앞으로 있을 수입 개방 현상은 70년대 오일쇼크 파동과 같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수입개방에 대해서 전혀 방어할만한 태세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수입은 개방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도산할 경우 그 영향이 생산자에

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료업체, 부화장, 동물약품업체 등 전체적인 업계에 파급효과가 커지고 또 많은 실업문제가 공업분야 만큼은 못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리라 봅니다. 현재 닭고기나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연 20~30%이상씩 증가하면서 국내의 생산기반은 있는 반면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은채 수입이 개방되면서 앞친데 뒷친격이 되어 한번은 상당히 도산을 초래하게 될 조짐마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리가 되면서라도 아픔을 씻고 기반이 잡혀진다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축산분야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낙후되어 선진외국의 영원한 종속국이 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사회: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대로 제품이 다양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못먹어 보던 치킨 스프라든가 여러 가지 통조림류, 너겟 등 많은 품목이 들어와서 팔리게 되면 새로운 수요창출이 되어 시장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값을 안정시키는데 조절용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농림수산부측에 건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풍림 사장

“수입개방은 70년대의 오일쇼크와 같은 파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않나 봅니다 전혀 지금의 입장에서는 방어할만한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